

# 간호대학교 학생과 교육대학교 학생의 분노표현, 주장행동 및 자아존중감 비교

성기월<sup>1</sup> · 광오계<sup>2</sup> · 이원희<sup>3</sup>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sup>1</sup>,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sup>2</sup>, 대구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sup>3</sup>

## Comparison of Anger Expression, Assertive Behavior, and Self-esteem between a Nursing Student Group and an Educational Student Group

Sung, Ki-Wol<sup>1</sup> · Kwag, Oh-Gye<sup>2</sup> · Lee Won-Hee<sup>3</sup>

<sup>1</sup>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sup>3</sup>Professor,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urpose:**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compare the degree of anger expression, assertive behavior, and self-esteem between a nursing student group and an educational student group, an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ir self-esteem. **Methods:** This study adopted the descriptive comparative design. Data were collected by interviewing 97 nursing students and 89 educational students from three nursing schools and one educational school in Daegu, Korea from November to December, 2008. **Result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educational student group had a higher self-esteem score than the nursing student group. 2)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anger expression, assertive behavior, and self-esteem. 3) Self-esteem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Grade Point Average (GPA) and assertive behavior in the nursing student group with 17.2% variance, and with assertive behavior and anger-out in the educational student group with 24.1% variance. **Conclusion:** These results may contribute to better understanding of hurt, anger expression, assertive behavior,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and educational students. Based on the results, there, it is required to develop programs that prompt students' self-esteem.

**Key Words :** Anger expression, Assertive behavior, Self-esteem, University student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대학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대학생들은 학교생활, 가치판단, 불투명한 장래에 대한 불안감, 학점, 새로운 대인관계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심리적 부담과 상처를 받으면서

대학생활에 적응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학업, 인간관계, 진로 및 취업(Chu, Min, & Park, 2001) 등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대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표출하는 분노표현, 주장행동의 양태나 수준이 다르고, 자아존중감 정도에 따라서도 차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간호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 M. Y. (1994)의

주요어 : 분노표현, 주장행동, 자아존중감, 대학생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wag, Oh-Gye,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55 Indeok-ri, Sandong-myeon, Gumi 730-739, Korea, Korea. Tel: 82-54-479-1380, Fax: 82-54-479-1380, E-mail: ogkwag@ikw.ac.kr

투고일 2009년 8월 6일 / 수정일 2009년 12월 21일 / 게재확정일 2009년 12월 21일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취업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보고 하였다. 특히, 간호사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전통적인 한국 문화의 특성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억제하면서 임상 간호에 임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현장에서 간호사들은 상처를 받고 분노의 감정을 느끼지만, 즉각적으로 적절하게 조절하거나 표출하지 못한다(Park, Bae, & Jung, 2003). 간호교육 현장에서도 간호학생들은 감정, 의견을 표현하는 행동이 억제되어(Lee, 1998), 실제 임상 간호사가 되더라도 대부분 비주장적 성향이 있으며, 주장적 기술이 부족하여(Park, S. Y., 1994) 비주장성은 대인관계나 사회관계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한편,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교육자로서 어린이의 다양한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제반 지식을 습득하고, 어린이의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게 된다. 교사는 학생의 시범인물로서 모범적 행동을 강요받고, 감정적 표출을 자제하도록 사회적 문화적 압력을 받는다. 또한 교사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동료 및 관리자인 교감과 교장과도 인간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갖가지 분노를 느끼며 생활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라는 직분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상처받은 마음과 분노심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유로 교육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노표현, 주장행동 연구 자체도 거의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간호학과 교육학은 인간행동의 이해와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학문이며 전문적 진출을 위해 전문가로서의 면허증과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문이다. 또한 간호사와 교사는 여성이 수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전문직이다(Hong et al., 2002), 그리고 간호사와 교사는 업무상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지만, 그것을 표출하기보다 억제하고 용서하는 사회문화적 요구를 받는 특성을 지닌다. 간호학과 교육학은 이와 같은 유사점과 공통점을 가지지만, 교사 그룹이 간호사 그룹보다 직무 스트레스가 높고, 직업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Hong et al., 2002). 그렇지만 이 연구는 현직 간호사와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 비교한 것이었고, 간호사와 교사를 준비하는 간호대학교와 교육대학교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교 학생과 교육대학교 학생에 대한 분노표현, 주장행동 및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

평가한 연구가 필요하며, 간호사와 교사의 준비과정에서 분노표현과 주장행동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이해력을 증진하고 관련된 기능을 습득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즉, 간호대학교 학생은 의료인인 간호사로서, 교육대학교 학생은 교사로서의 전문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노감이나 긴장감이 쌓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부딪히게 될 문제와 갈등을 효율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간호대학교 학생과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과도한 수업에서 오는 학업 스트레스와 실습을 통한 대인관계의 스트레스로 여러 가지 심리적 부담을 느끼지만 적절히 해소시키는 방법을 습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간호대학교 학생과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상처를 받고 참으면서 형성된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고, 주장행동을 어떤 방식으로 표출하며, 어느 정도의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교 학생과 교육대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서 오는 상처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노표현, 주장행동과 자아존중감 정도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전문직 간호사를 준비하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용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표는 간호대학교 학생과 교육대학교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가지는 상처실태와 분노표현, 주장행동 및 자아존중감을 비교분석하고,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변인을 파악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교 학생과 교육대학교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상처실태를 비교한다.
- 간호대학교 학생과 교육대학교 학생의 분노표현, 주장행동, 자아존중감을 비교한다.
- 간호대학교 학생과 교육대학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제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한다.
- 간호대학교 학생과 교육대학교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비교한다.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에 소재한 세 곳의 4년제 간호대학교 학생과 한 곳의 교육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적용과 해석을 일반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교 학생과 교육대학교 학생의 상처실태와 분노표현, 주장행동 및 자아존중감을 비교분석하고,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변인을 파악하는 비교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에 소재한 세 곳의 4년제 간호대학교 3학년학생 97명과 한 곳의 교육대학교 자연계 3학년 학생 89명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Erdfelder, Faul, & Buchner, 1996)를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두 집단의 평균차이검정인 t-test를 위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효과 크기는 보통정도 수준인 .50로 하여 184명이 결정되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190명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12월까지였다. 수집된 186명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이용하였다.

### 3. 연구도구

#### 1) 분노표현

분노표현은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 (1988)의 State 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한국의 설정에 맞게 표준화한 한국판 STAXI (Chon, Han, Lee, & Spielberger, 1997) 중 분노표현양식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분노억제(anger-in), 분노표출(anger-out), 분노통제(anger-control)를 측정하는 각 8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는 4점 척도로서 평가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3점까지 이루어져 있다. 개발당시 각 하위 척도의 신뢰도는 분노억제가 Cronbach's  $\alpha = .76$ , 분노표출이 Cronbach's  $\alpha = .74$ , 분노통제가 Cronbach's  $\alpha = .8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분노억제가 Cronbach's  $\alpha = .73$ , 분노표출이 Cronbach's  $\alpha = .75$ , 분노통제가 Cronbach's  $\alpha = .80$ 이었으며 전체 Cronbach's  $\alpha = .827$ 이었다.

#### 2) 주장행동

Kim (1990)이 개발한 주장행동척도는 행동적 주장척도, 인지적 주장 척도, 정서적 주장 척도, 전반적 주장척도의 네 가지 하위척도로 각각 25문항씩 총 1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장척도는 Kim (1990)의 주장척도 중 전반적 주장척도 25문항이다. 전반적 주장척도는 주장행동이 요구되는 장면에서 실제로 주장행동을 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실제로 주장행동을 하는 여부에 초점을 두고 제작된 것이다. 전반적 주장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주장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주장행동을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5점 척도이며 긍정문과 부정문이 혼합되어 있다. 긍정문으로 진술된 문항은 20 문항이며 부정문은 5 문항이다. 채점방식은 긍정문으로 진술된 문항에서 '거의 불일치'를 1점, '대체로 불일치'를 2점, '반 정도 일치'를 3점, '대체로 일치'를 4점, '거의 일치'를 5점으로 채점하였고, 부정문으로 진술된 문항은 반대로 채점하였다. 개발당시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 .809$ 이었다.

####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Jon (1974)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자가보고식 척도로 긍정적 문항 5개와 부정적인 문항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Likert 식 4점 척도이며 '매우 그렇다' 4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하였고 의미가 반대되는 문항은 역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Rosenberg가 개발할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01$ 이었다.

#### 4) 학교생활 관련 상처정도

학교생활에서 1학기인 6개월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상처받은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자신이 갖는 상처정도이다. 상처정도는 시각적 상사 척도(Visual Analogue Scale)를 이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왼쪽 끝에 0 (전혀 상처 받지 않음) 오른쪽 끝에 10 (매우 상처 받음) 이라고 적혀있는 10 cm 수평선상에 대상자의 상처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여 가장 왼쪽 끝을 기준으로 쟈 길이(cm)를 점수화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상처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간호대학학교 학생과 교육대학학교 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학교생활과 관련된 상처실태 비교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Chi-square test와 독립 t-test로 하였다.
- 간호대학학교 학생과 교육대학학교 학생의 분노표현, 주장행동과 자아존중감 비교는 독립 t-test로 하였다.
- 간호대학학교 학생과 교육대학학교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비교는 one-way ANOVA와 독립 t-test를 하였고, 사후 검정으로는 Scheffe's test를 하였다.
- 간호대학학교 학생과 교육대학학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제변수 간의 상관관계 비교는 Pearson's correlation을 하였다.
- 간호대학학교 학생과 교육대학학교 학생의 자아존중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비교는 multiple regression으로 하였다.

### 연구결과

#### 1. 간호대학학교 학생과 교육대학학교 학생의 일반적 특성 비교

간호대학학교 학생과 교육대학학교 학생의 일반적 특성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나이( $t=-2.344$ ,  $p=.020$ ), 성별( $\chi^2=-61.975$ ,  $p<.001$ ), 종교( $\chi^2=18.533$ ,  $p<.001$ ), 거주형태( $\chi^2=47.684$ ,  $p<.001$ ), 월용돈( $\chi^2=23.723$ ,  $p<.001$ )으로 나타났다.

나이는 교육대학학교 학생이 평균 25.62세로 간호대학학교 학생 24.47세보다 많았으며, 성별은 교육대학학교 학생에서 '남자'가 58.4%로 간호대학학교 학생 5.2%보다 많았다. 종교에서 간호대학학교 학생은 '가톨릭'과 '종교 없음'이 각각 38.1%로 가장 빈도가 높았고 교육대학학교 학생은 '종교 없음'이 48.3%로 가장 빈도가 높았다. 거주 형태는 간호대학학교 학생은 '아파트'가 80.4%로 가장 빈도가 높았고 교육대학학교 학생은 '주택'이 47.2%로 가장 빈도가 높았다. 월용돈은 간호대학학교 학생이 '매우 불만이다'가 45.4%로 가장 빈도가 높았고, 교육대학학교 학생은 33.7%가 '불만이다'로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1).

#### 2. 간호대학학교 학생과 교육대학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서의 상처실태 비교

간호대학학교 학생과 교육대학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상처정도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상처를 받은 대상자( $\chi^2=26.423$ ,  $p<.001$ ), 상처를 받은 이유( $\chi^2=32.099$ ,  $p<.001$ ), 상처기간( $t=2.921$ ,  $p=.004$ ), 상처 해결 시도( $\chi^2=11.206$ ,  $p=.001$ )로 나타났다.

상처를 받은 대상자는 간호대학학교 학생의 경우는 48.5%가 '동료'로부터였으며 그 다음 34.0%가 '선배'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하였으며 교육대학학교 학생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인 77.5%가 '동료'로부터였으며 '선배'나 '후배', '교수진'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경우는 각각 5.6%에 불과하였다. 간호대학학교 학생의 34.0%가 '선배'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결과는 교육대학학교 학생의 5.6%가 '선배'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상처를 받은 이유에서 간호대학학교 학생들은 29.9%가 '무시', 21.6%가 '비난', 16.5%가 '외면', 10.3%가 '평가/비교'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교육대학학교 학생들은 29.2%가 '거부', 28.1%가 '배반', 11.2%가 '평가/비교' 등으로 나타나 간호대학학교 학생들이 무시감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 이로 인해 받은 상처의 기간은 간호대학학교 학생은 38.28일인 반면 교육대학학교 학생들은 111.55일로 나타나 교육대학학교 학생들은 간호대학학교 학생보다 상처받은 기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상처해결의 시도 유무에서 간호대학학교 학생은 '시도했음'이 49.0%였고 교육대학학교 학생은 73.0%로 나타나 교육대학학교 학생이 간호대학학교 학생보다 상처해결을 위해 더 많이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 3. 간호대학학교 학생과 교육대학학교 학생의 분노표현, 주장행동과 자아존중감 비교

간호대학학교 학생과 교육대학학교 학생의 분노표현, 주장행동과 자아존중감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자아존중감( $t=-15.815$ ,  $p<.001$ )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서 간호대학학교 학생은 평균 26.54점으로 교육대학학교 학생의 평균 33.10점보다 낮게 나타나 간호대학학교 학생이 교육대학학교 학생보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낮았다.

분노표현은 교육대학학교 학생이 평균 51.13점으로 간호

**Table 1.** Comparison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a Nursing Student Group and an Educational Student Group (N=18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ursing students (n=97)	Educational students (n=89)	$\chi^2$ or t (p)
		n (%) or M±SD	n (%) or M±SD	
Age (year)		24.47±2.880	25.62±3.749	-2.344 (.020)
Gender	Male	5 (5.2)	52 (58.4)	61.975 (<.001)
	Female	92 (94.8)	37 (41.6)	
Religion	Protestant	10 (10.3)	15 (16.9)	18.533 (<.001)
	Buddhist	13 (13.4)	21 (23.6)	
	Catholic	37 (38.1)	10 (11.2)	
	None	37 (38.1)	43 (48.3)	
Blood type	A	29 (29.9)	29 (32.6)	0.297 (.961)
	B	25 (25.8)	24 (27.0)	
	O	31 (32.0)	26 (29.2)	
	AB	12 (12.4)	10 (11.2)	
Grade point average (GPA)	High-ranking 10%	13 (14.0)	20 (22.5)	7.087 (.069)
	High-ranking 30%	21 (22.6)	30 (33.7)	
	High-ranking 50%	34 (36.6)	23 (25.8)	
	Less than 50%	25 (26.9)	16 (18.0)	
Type of residence	Apartment House	78 (80.4)	28 (31.5)	47.684 (<.001)
	Single-Family House	17 (17.5)	42 (47.2)	
	House	2 (2.1)	19 (21.3)	
	Other			
Type of department in high school	Science	94 (96.9)	85 (95.5)	0.616*
	Liberal arts	3 (3.1)	4 (4.5)	
Pocket Money/month	Very Satisfy	7 (7.2)	19 (21.3)	23.723 (<.001)
	Satisfy	15 (15.5)	26 (29.2)	
	Unsatisfy	31 (32.0)	30 (33.7)	
	Very Unsatisfy	44 (45.4)	14 (15.7)	
Experience living in rural area	Yes	24 (24.7)	13 (14.6)	2.992 (.084)
	No	73 (75.3)	76 (85.4)	

\* Fisher's exact test

대학교 학생의 평균 50.28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며( $t=-.885, p=.377$ ), 주장행동은 간호대학교 학생이 평균 73.79점으로 교육대학교 학생의 평균 72.83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t=.604, p=.547$ ) (Table 3).

#### 4. 간호대학교 학생과 교육대학교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간호대학교 학생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성별( $F=2.56, p=.012$ ), 전학기 성적( $F=4.12, p=.009$ )로 나타났고 교육대학교 학생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거주형태( $F=4.572, p=.013$ )로 나타났다.

간호대학교 학생에서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남자( $29.00 \pm 0.81$ )가 여자( $26.43 \pm 1.98$ )보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았으며, 전학기 성적의 평균이 상위 10%인 학생( $27.44 \pm 1.71$ )이 상위 50아래인 학생( $25.31 \pm 2.72$ )보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았다. 교육대학교 학생에서 자아존중감은 거주 형태가 단독주택( $34.05 \pm 3.14$ )에 사는 학생이 기타 주택( $31.26 \pm 2.62$ )에 사는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Table 4).

#### 5. 간호대학교 학생과 교육대학교 학생의 용서정도와 관련 변수와의 상관관계

간호대학교 학생에서 자아존중감은 주장행동( $r=.240, p=.018$ )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자아존중감은 주장행동의 점수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교육대학교 학생에서는 자아존중감은 분노억제( $r=.240,$

**Table 2.** Comparison of Hurt-related Status between a Nursing Student Group and an Educational Student Group (N=186)

Variables	Nursing students (n=97)		Educational students (n=89)		x <sup>2</sup> or t (p)
	n (%) or M±SD		n (%) or M±SD		
Opponents of hurts in school life (double checked)	Colleague	47 (48.5)	69 (77.5)		26.423 (<.001)
	Senior	33 (34.0)	5 (5.6)		
	Junior	4 (4.1)	5 (5.6)		
	Faculty members	4 (4.1)	5 (5.6)		
	Others	9 (9.2)	5 (5.6)		
Reason of hurt-related status	Neglect	29 (29.9)	8 (9.0)		32.099 (<.001)
	Denial	16 (16.5)	26 (29.2)		
	Valuation/comparison	10 (10.3)	10 (11.2)		
	Betray	6 (6.2)	25 (28.1)		
	Mockery	5 (5.2)	5 (5.6)		
	Blame	21 (21.6)	8 (9.0)		
	Doubt	5 (5.2)	4 (4.5)		
	Others	5 (5.2)	3 (3.4)		
Durations of hurt (day)		38.28±97.83	111.55±220.25		-2.921 (.004)
Degree of hurt		6.20±2.11	6.66±2.45		-1.385 (.168)
Anger event	Yes	85 (88.5)	79 (88.8)		1.156 (.561)
	No	11 (11.5)	10 (11.2)		
Endeavor to resolve the hurt	Yes	47 (49.0)	65 (73.0)		11.206 (.001)
	No	49 (51.0)	24 (27.0)		

**Table 3.** Comparisons of Anger Expression, Assertive Behavior, and Self-esteem between a Nursing Student Group and an Educational Student Group (N=186)

Variables	Nursing student (n=97)	Educational student (n=89)	t (p)
	M±SD	M±SD	
Anger expression	50.28±6.30	51.13±6.88	-0.885 (.377)
Anger-in	17.05±2.53	17.28±2.64	-0.603 (.547)
Anger-out	16.55±2.77	16.64±3.14	-0.217 (.829)
Anger-control	16.68±2.53	17.21±2.75	-1.376 (.171)
Assertive behavior	73.79±8.73	72.83±12.78	0.604 (.547)
Self-esteem	26.54±2.01	33.10±3.48	-15.815 (<.001)

p=.024), 분노표출(r=.333, p=.001), 분노조절(r=.243, p=.022), 주장행동(r=.378,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자아존중감은 분노억제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표출의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조절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리고, 주장행동의 점수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Table 5).

**6. 간호대학교 학생과 교육대학교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비교**

간호대학교 학생과 교육대학교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

행하였으며 명목척도로 측정된 변수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간호대학교 학생은 성별, 전학기 성적, 상처정도,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조절, 주장행동이며, 교육대학교 학생은 상처를 준 대상자, 거주형태, 상처정도,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조절, 주장행동이다.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정과 잔차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수추정치에 대한 허용도가 0.1 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요인도(VIF) 1.0 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다중공선성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다중공선성의 확인 후 잔차 분석을 위해 Durbin-

## 논 의

Watson 검정을 실시한 결과 값이 2.0에 가까운 1.991와 1.727의 값으로 나타나 오차항 간에 체계적인 상관성이 없었으며, 오차항의 정규분포를 검정할 수 있어 설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F=4.577, p=.035; F=13.313, p<.001$ ).

간호대학교 학생에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전 학기 성적( $\beta=.345$ )과 주장행동( $\beta=.209$ )로 나타났다. 전 학기 성적과 주장행동은 자아존중감을 17.2% 설명하였다. 교육대학교 학생에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장행동( $\beta=.348$ )과 분노표출( $\beta=.308$ )로 나타났다으며 이 두 변수는 자아존중감을 24.1% 설명하였다 (Table 6).

### 1. 간호대학교 학생과 교육대학교 학생의 비교

간호대학교 학생과 교육대학교 학생은 전문적인 간호사와 교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며, 그들의 대인관계 문제, 진로선택에 대한 문제, 학교생활 부적응 등의 문제는 학습능력을 저하시켜(Chu, Min, & Park, 2001) 훌륭한 전문직 간호사와 교사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된다. 간호대학생과 교육대학생의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 보면, 표집 대

**Table 4.** The Difference of Self-estee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in a Nursing Student Group and an Educational Student Group (N=186)

Variables		Nursing students (n=97)	t or F (p)	Educational students (n=89)	t or F (p)
		M±SD		M±SD	
Gender	Male	29.00±0.81	2.56 (.012)	32.90±3.24	-0.631 (.530)
	Female	26.43±1.98		33.38±3.81	
Religion	Protestant	26.80±2.25	0.284 (.837)	33.33±2.12	1.67 (.178)
	Buddhist	26.31±1.93		33.43±2.97	
	Catholic	26.72±2.14		30.80±4.02	
	None	26.38±1.90		33.40±3.84	
Type of blood	A	26.45±1.72	1.13 (.339)	33.52±3.41	0.223 (.880)
	B	26.13±1.70		32.79±3.81	
	O	26.61±2.47		33.04±3.53	
	AB	27.42±1.88		32.80±2.82	
Grade point average (GPA)	High-ranking 10%	27.44±1.71 <sup>†</sup>	4.12 (.009)	33.40±3.13	0.216 (.885)
	High-ranking 30%	26.71±1.81		33.23±3.29	
	High-ranking 50%	26.05±1.77		33.09±4.02	
	Less than 50%	25.31±2.72 <sup>†</sup>		32.50±3.67	
Type of residence	Apartment house	26.48±2.02	0.984 (.378)	32.93±4.00	4.57 (.013)
	Single-family house	26.59±2.03		34.05±3.14 <sup>†</sup>	
	house	28.50±0.70		31.26±2.62 <sup>†</sup>	
	Other				
Type of department in high school	Science	26.56±2.04	0.471 (.639)	33.16±3.44	0.792 (.431)
	Liberal arts	26.00±1.00		31.75±4.57	
Pocket money/month	Very satisfy	27.43±1.90	1.17 (1.17)	33.68±3.21	0.661 (.578)
	Satisfy	25.93±2.12		33.54±3.22	
	Unsatisfy	26.33±1.88		32.47±3.77	
	Very unsatisfy	26.75±2.07		32.86±3.75	
Experience living in rural area	Yes	27.04±1.75	1.41 (.162)	32.46±2.78	-0.714 (.477)
	No	26.38±2.07		33.21±3.59	

<sup>†</sup>Scheffe's test.

**Table 5.** Correlation of Self-esteem among Other Variables in a Nursing Student Group and an Educational Student Group

Nursing students (n=97)	Degree of hurt	Anger-in	Anger-out	Anger-control	Assertive behavior	Self-esteem
Degree of hurt	1					
Anger-in	.149 (.148)	1				
Anger-out	.153 (.136)	.431 (<.001)	1			
Anger-control	.168 (.103)	.372 (<.001)	.600 (<.001)	1		
Assertive behavior	.214 (.036)	-.163 (.110)	.105 (.307)	.174 (.089)	1	
Self-esteem	.129 (.213)	.172 (.094)	.035 (.731)	.032 (.757)	.240 (.018)	1

  

Education students (n=89)	Degree of hurt	Anger-in	Anger-out	Anger-control	Assertive behavior	Self-esteem
Degree of hurt	1					
Anger-in	.307 (.003)	1				
Anger-out	.219 (.039)	.466 (<.001)	1			
Anger-control	.086 (.420)	.502 (<.001)	.455 (<.001)	1		
Assertive behavior	.102 (.343)	.290 (.006)	.127 (.237)	.257 (.015)	1	
Self-esteem	.173 (.105)	.240 (.024)	.333 (.001)	.243 (.022)	.378 (<.001)	1

**Table 6.** The Variables Influencing on Self-esteem in a Nursing Student Group and an Educational Student Group

Nursing students (n=97)	$\beta$	Cum, R <sup>2</sup>	t	p
(Constant)			11,614	<.001
Grade Point Average (GPA)	.345	.128	3.525	.001
Assertive Behavior	.209	.172	2,139	.035
$R^2 = .172, F=4.577, p=.035$				
Educational students (n=89)	$\beta$	Cum, R <sup>2</sup>	t	p
(Constant)			8,178	<.001
Assertive behavior	.348	.147	3,635	<.001
Anger-out	.308	.241	3,222	.002
$R^2 = .241, F=13.313, p < .001$				

상을 같은 3학년 학생을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평균 연령이 높은 것은 군복무를 마치고 학업을 계속하는 남학생의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교의 남학생이 5명에 불과하여 성별과 나이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성별과 나이를 공변량화 한 추후연구가 요구된다.

월 용돈에 대해 간호대학교 학생의 경우 '매우 불만이다'가 가장 높고(45.4%),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경우 '불만이다'가 가장 높게(33.7%) 나타난 것은 학생들의 가정 배경이 다른 데에도 기인하겠지만, 교육대학생들이 과외와 같은 아르바이트를 간호대학교 학생에 비하여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상처실태에서 상처를 받은 대상이 '동료'라고 지적인 비율이 간호대학교의 경우 48.5%인데 비하여,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77.55%라고 응답하여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양 대학의 취업 상황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육대학교 학생 성적은 석차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되어 등급 배점에 따라 교원임용의 당락을 결정하는 변수가 된다. 그러므로 교육대학 학생들은 심한 학력경쟁으로 인하여 간호대학 학생들보다 동료 간의 상처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간호대학교 학생들은 선배로부터 상처를 받은 비율(34.0%)이 교육대학교 학생의 응답률(5.6%)에 비하여 크게 높은 것이 특이하다. 말하자면, 간호대학생들은 선후배 위계가 보다 엄격하고 선후배간의 대인관계가 경직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상처를 받은 이유에서도 '무시감'이 간호대학교 학생(29.9%)이 교육대학교 학생(9.0%)보다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 점수가 간호대학교 학생(평균 26.25점)이 교육대학교 학생(평균 33.10점)보다 낮게 나타난 결과와도 연관이 있다고 본다.

간호대학교 학생과 일반 여자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비교한 Han과 Kim (2007)의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는 하지만, 간호대학교 학생이 일반 여자대학생보다 자아존중감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간호대학교 학생이 전문직 간호사를 준비하는 대학생활에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교생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분노표현, 주장행동 및 자아존중감

본 연구의 결과에서 분노표현과 주장행동은 간호대학교 학생과 교육대학교 학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아존중감은 교육대학교 학생이 간호대학교 학생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들이 주를 이루는 간호대학교 학생들은 전통적인 한국 문화의 특성과 함께 비교적 엄격한 상하 위계관계의식이 상존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억제하고 학업을 수행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분노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적절하게 조절하거나 표출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학년이 낮을수록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

러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스스로가 가치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거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우울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Han, & Kim, 2007).

과도한 분노는 불안, 우울, 신경증, 성격장애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에 원인이 되고(Lee, 1998; Lee, Son, Lee, Park, & Park, 2005), 심장질환 및 소화기질환(Cautin, Overholser, & Goetz, 2001) 등의 신체질환 발생률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간호대학교 학생과 교육대학교 학생의 내외적 문제와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주장행동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주장훈련을 적용하여 한 Jang (2002)의 연구에서는 문제해결 능력과 대인관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고, 간호사에게 적용한 Kang과 Lee (2006)의 연구에서도 주장행동을 신장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한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학생들의 심리적 갈등과 부정적 감정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3.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자아존중감이란 자기평가라는 요소가 내포되어 있으며,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Song, 1999).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교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적과 주장행동이었고, 교육대학교 학생의 경우는 주장행동과 분노표출로 나타났다.

간호대학교 학생의 경우 학업성적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난 결과는 일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Chu, Min과 Park (2001)의 연구는 대학생들의 생활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학업, 인간관계, 진로 및 취업 등으로 밝히고 있고, Park, M. Y. (1994)의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취업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간호대학교의 교육이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학업성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같다.

Rhee (1990)는 간호대학교 학생에게 주장 훈련을 적용하여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아지고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낮

아졌음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간호대학교 학생과 교육대학교 학생 모두에서 주장행동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 Rhee (1990)의 보고를 지지해주었다. 한편, 교육대학교 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분노표출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은 Cho와 So (2007)가 체육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와 같다. 분노표출은 분노조절과 분노억제와 함께 분노표현의 하부요인이라는 점에서 분노도 자기 억제 또는 자기결단과 같은 자기의식이 전제되어 표출된다는 점에서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감안한다면, 간호대학교 학생과 교육대학교 학생은 간호사와 교사의 전문직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표현할 줄 알고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즉, 간호대학교와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전공영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가로서의 자기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간호대학교와 교육대학교 교수들은 대학생들의 분노표현양식과 학교생활에서 받는 상처를 이해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주장행동을 할 기회를 강화하여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간호대학교 학생들에게는 주장훈련 교과목을 편성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의사소통 기술을 증진시키고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며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교 학생과 교육대학교 학생의 분노표현, 주장행동과 자아존중감을 파악하고,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변인을 파악하는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D시에 소재한 3곳의 4년제 간호대학교 3학년 학생 97명과 1곳의 교육대학교 학생 89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11월부터 12월까지였다. 연구도구는 Chon 등(1997)의 분노표현척도, Kim (1990)의 주장행동, Jon (1974)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범위, Chi-square test, 독립 t-test, one-way ANOVA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학교생활에서 상처를 받은 대상자는 간호대학교 학생은 '동료'와 '선배'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하였으나 교육대학교 학생은 거의 대부분이 '동료'로부터였다. 특히 간

호대학교 학생의 경우 '선배'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는 결과는 교육대학교 학생과 큰 차이를 보였다.

둘째, 상처를 받은 이유는 간호대학교 학생들은 '무시', '비난', '외면', '평가/비교'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거부', '배반', '평가/비교' 등으로 나타나 간호대학교 학생들이 무시감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 이로 인해 받은 상처의 기간은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간호대학교 학생보다 더 오래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교육대학교 학생이 간호대학교 학생보다 높았다.

넷째, 간호대학교 학생에서 자아존중감은 남자가 여자보다 전 학기 성적이 높은 학생이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고 교육대학교 학생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학생이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간호대학교 학생에서 자아존중감은 주장행동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교육대학교 학생은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조절, 주장행동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여섯째, 간호대학교 학생에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적과, 주장행동이 17.2%를 설명하였고, 교육대학교 학생은 주장행동과 분노 표출이 24.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대학교 학생과 교육대학교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추가하여 설명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간호대학교 학생이 교육대학교 학생보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이유를 규명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간호대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서 가지는 상처정도를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Cautin, R. A., Overholser, J. C., & Goetz, P. (2001). Assessment of mode of anger expression in adolescent psychiatric inpatients. *Adolescence, 36*, 163-170.
- Cho, H. I., & So, Y. H. (2007). Anger, self-esteem and depression among collage students major i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science.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6*(1), 295-307.
- Chon, K. K., Han, D. W., Lee, C. H., & Spielberger, C. D. (1997).

-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K): The case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10), 60-78.
- Chu, J. P., Min, B. I., & Park, S. G. (2001). Perceived sources and coping methods of stress in a popula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9(2), 41-50.
- Erdfelder, E., Faul, F., & Buchner, A. (1996). GPOWER: A general power analysis program.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28, 1-11.
- Han, K. S., & Kim, G. M. (2007). Comparison to self-esteem, family adaptation,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symptoms of stress between nursing and other major university women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y Mental Health Nursing*, 16(1), 78-84
- Hong, K. J., Tak, Y. R., Kang, H. S., Kim, K. S., Park, H. R., Kwang, W. H., et al. (2002). The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health of women who work in the professional job: Nurses and teach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4), 570-579.
- Jang, I. S. (2002). *Effect of assertiveness training on assertiveness behavior,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hang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J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1(1), 107-129.
- Kang, M. J., & Lee, H. J. (2006). The effect of assertiveness training on Communication related factors and personnel turnover rate among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5), 681-690.
- Kim, S. H. (1990). *A comparison of the effects of assertiveness training approaches according to non-assertiveness causes on assertiven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 Lee, P. S., Son, J. N., Lee, Y. M., Park, E. Y., & Park, J. S. (2005). A Correlational Study among Perceived Stress, Anger Expression, and Depression in Cancer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1), 195-205.
- Lee, S. H. (1998).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problem solving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Park, H. S., Bae, Y. J., & Jung, S. Y. (2003). A study on anger expression and burn out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2(3), 235-244.
- Park, M. Y. (1994). Health promoting lifestyle and related factor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5(1), 81-96.
- Park, S. Y. (1994). *The effect of assertiveness training and value clarification training on nurse's conflict level and conflict management mod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Seoul.
- Rhee, I. S. (1990). *The effects of assertive training on assertive behavior,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stress of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Taejon.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ong, S. W. (1999).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level of the stress perceived, coping style of stress of the college students. *Students Life Research Institute in Sangmyung University*, 12, 1-30.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 (Eds.).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 New York: Springer Verlag.